

**사람과 관계된 계명들이 ‘부모 공경’으로 시작되는 것은 왜일까요?** 제1-제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은 계명들로, ‘하나님만 섬기라’로 시작됩니다. 제5-제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담은 계명들로, ‘부모를 공경하라’로 시작됩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, 뒤이은 계명들도 소용없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됩니다. 부모 공경에 담긴 묵상들 없이는 인간들과의 관계 역시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.

**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.**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, 원수 사랑.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.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. 성경에서 ‘경외’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께 쓰였지만, 그 외에 유일하게 주어로 오는 존재가 ‘부모’입니다. “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”(레 19:1). 왜 부모를 경외해야 할까요?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, 부모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며, 내 삶의 의미도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.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, 부모에게 불경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께 불경하는 것입니다.

**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(요 13:1).**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복된 삶을 살도록 사랑으로 양육합니다. 그 사랑만으로도 공경받기에 마땅합니다. 부모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와 같은 형벌을 적용했습니다. 즉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(출 21:15, 17; 신 21:18-21). 이 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드물었을 것입니다. 사형에 처해질 걸 알면서 자식을 고발할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.

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합니까?

- ① 어떤 마음, 어떤 방법으로 공경하며 경외합니까?
- ② 공경과 경외를 가로막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?